

TV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⑤:5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0 채널A 아침뉴스 50 길데까지(재)	50 인강극장		1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25 아침이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활속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두 여자의 방>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뉴스 10 5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지렁이(재) 55 트윈생활채널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50 웰컴 투 시월드(재)	00 농업인의 날 특집 3차 농업혁명 홍에서 미래를 캐다 55 바른길 고은발 <미래의 선택>(재)	10 KBS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월화드라마 <미래의 선택>(재)	MBC 여성토론 워드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00 KBS 뉴스 12	50 V특공대(재)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20 문화콘서트 난장 스페셜	00 SBS12뉴스 30 KBC 열린토론회(재)
1 00 뉴스특보 1~2부	00 2013 중계방송 국회 인사청문회 황친형 감사원장 후보자			30 네트워크 현장 고희영이 보인다
2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디큐(재)	10 중계방송 국회 인사청문회 황친형 감사원장 후보자	30 SBS 뉴스 40 중계방송 국회 인사청문회 황친형 감사원장 후보자
3 00 웰컴 투 시월드(재)		00 후스토 잃어버린 숲(재) 25 구름방 2(재) 55 TV유치원		
4 10 박종진의 뉴스쇼 캐드난마 1~2부	00 KBS 네트워크 특선 <경남 100경 완정정복> 55 트윈 생활 체조(재)	25 아기종벌레 포포(재) 55 임아가 있는 풍경 마미도(재)	00 똑? 똑! 키즈스쿨 30 키즈 CSI 과학수사대	00 2013 유청소년클럽리그 결승전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 이브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0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10 채널A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전보통	20 MBC 가요베스트	05 세네포트
7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 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 드라마 <무비반지>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토크 떠들썩하다 20 일일 드라마 <웃나미 주의보>
8 30 그때 그 사람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월드워터리 우리가 간다
9 40 채널 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킷투의 배란다쇼	
10	00 가요무대 55 문/화/산/책 포플러	00 월화드라마 <미래의 선택>	00 월화 특별기획 <기황후>	00 월화드라마 <수상한 가정부>
11 00 명랑해결단	30 KBS 뉴스라인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공간디큐 <그곳>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10 논리 폴다 스페셜(재) ①:20 카톡쇼(재)	30 문화책잡기 ①:10 T데이 40 알약톡톡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해외 특별기획 드라마 <초한지>	15 MBC 뉴스 24 45 스포츠 특선 아구 읽어주는 남자 ①:50 바비킴·이무마의 TV예술무대	35 나이트 라인 ①:05 SBS골프

EBS

06:10 디문화 고부 열전	11:20 세계테마기행 <와일드 브라질 1부 미지의 신비, 고원과 보리두>	15:15 꼬미기사 마이크 13:30 꼬미가부 코령클린 15:45 외골와를 친구들 16:00 덩동명 유치원(재) 16:20 세계테마기행 16:30 부릉부릉 부르미즈 16:45 숲 친구 파파플래(재) 17:00 방귀대장 뽕뽕이 17:15 시계마을 티키토 17:30 문/화/산/책 포플러	19:30 피들리팝 19:50 모피와 친구들 20:00 EBS뉴스 20:20 오리버전 20:50 세계테마기행 <이탈리아 문명기행 1부 로마제국, 위대한 탄생> 21:30 한국기행 <영남 일포스> 21:50 EBS 다크프라이즈 <초등생장 보고서> 22:45 달라졌어요 23:35 지식채널e 클래식(재) 23:40 생활속 EBS교육 대토론 24:05 다문화 <사랑>
07:00 미술체험대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 13:05 지식채널e 클래식 13:10 즐거운 수학 EBSMATH 13:20 배움너머 13:30 꿀꿀 페피는 즐거워 13:45 비두와 친구들 14:00 지난 제리우스 박사님 14:15 팀가탈가 이야기 14:30 꾸러기 상상여행 15:00 열려라 아비디스	16:30 부릉부릉 부르미즈 16:45 숲 친구 파파플래(재)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17:15 시계마을 티키토 17:30 뽕뽕뽕 뽕뽕이 17:45 놀이터 구조대 뽕뽕이 18:00 미연 마이 로봇 18:15 정글북 18:3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	
07:15 정글북			
07:30 부릉부릉 부르미즈			
07:45 뽕뽕뽕 뽕뽕이			
08:00 덩동명 유치원			
08:20 놀이터 구조대 뽕뽕이			
08:35 방귀대장 뽕뽕이			
08:50 숲 친구 파파플래			
09:10 시계마을 티키토			
09:20 부모			
10:00 한국기행			
10:20 오리버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EBS플러스1

00:00 기본과 특별한 <일반사회>	12:30 최태민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불교문화 <수학(상)>	13:00 탐스런 <생활과 윤리(3)>	14:00 2015 수능 스타트 <수학 A형(1)>
01:40	15:00	16:00	17:00
02:30 포스 <독서와 문법>	15:00	16:00	17:00
03:20	15:00	16:00	17:00
04:10	15:00	16:00	17:00
05:00	15:00	16:00	17:00
05:50	15:00	16:00	17:00
06:40	15:00	16:00	17:00
07:30	15:00	16:00	17:00
08:20	15:00	16:00	17:00
09:10	15:00	16:00	17:00
10:00	15:00	16:00	17:00
10:50	15:00	16:00	17:00

EBS플러스2

07:00 하하불의 상상놀이(1)~(3)	15:40	16:10	16:40
08:00 매경TEST 시험대비 강좌	16:10	16:40	17:10
08:30 나의 성공비결	16:40	17:10	17:40
09:00 즐거운 수학 EBSMATH	17:10	17:40	18:10
09:10 TV 중학 1학년	17:40	18:10	18:40
09:50	18:00	18:30	19:00
10:30	18:30	19:00	19:30
11:10	19:00	19:30	20:00
11:50	19:30	20:00	20:30
12:30	20:00	20:30	21:00
13:10	20:30	21:00	21:30
13:50	21:00	21:30	22:00
14:30	21:30	22:00	22:30
15:10	22:00	22:30	23:00

知天命이 모든 오늘의 운세

11월 11일(음 10월 9일 辛巳)

子	36년생 성취하리라. 48년생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종결지어질 수다. 60년생 최대한 활용해야 할 때이니라. 72년생 아직은 서막에 불과하니 추이를 더 지켜보아라. 84년생 진일보만이 미래를 열어 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6, 29
丑	37년생 겨울에 대한 상상 된다. 49년생 불안감을 극복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자. 61년생 얻게 될 것이니 놓치지 말라. 73년생 행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85년생 흥은 가고 길사가 접근 한다. 행운의 숫자 : 04, 66
寅	38년생 황금 골짜기와 같다. 50년생 최선을 다 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 하리라. 62년생 무리하게 집중하다보면 시간 개념을 놓쳐서 주변과 조화를 잃을 수도 있느니라. 74년생 일단 안정을 시키고 불 일이다. 행운의 숫자 : 85, 37
卯	39년생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51년생 관계가 건조해지면 애로 사항이 많아질 수도 있느니라. 63년생 주저하지 말고 계획대로 실행하라. 75년생 가까운 이들의 의식해야 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52, 60
辰	40년생 외관이 좋지만 실속도 있으리라. 52년생 잘 정리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64년생 급전에 집착하는 것보다 인간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 76년생 본의 아니게 멀리 이동해야 하는 입장이이다. 행운의 숫자 : 61, 53
巳	41년생 관점이 명확해야 한다. 53년생 마음만으로는 아니 되니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하자. 65년생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합류할 필요가 없다. 77년생 미리 방책을 세워 두는 것이 백번 나은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2, 62

午	42년생 정상적인 상태의 진행이라면 무난하겠다. 54년생 심기일전 한다면 활기 찬 미래를 열 수 있다. 66년생 소수자 하더라도 알차다면 의미가 깊다. 78년생 기본적인 개념 파악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1, 25
未	43년생 출발은 무난하나 단속적인 상황이 나타날 것이니라. 55년생 상대와의 신뢰 관계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67년생 가는 길이 고와야 오는 말도 굵다. 79년생 본격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88, 18
申	44년생 발표회는 작음과도 같은 이치이니라. 56년생 돈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가 나게 되어 있도다. 68년생 객관적인 평가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80년생 구조적인 모순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 행운의 숫자 26, 74
酉	45년생 처리해야 할 일들이 복잡다단하다. 57년생 의외로 쉽게 결론 내려질 수도 있다. 69년생 현 시점에서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81년생 지혜롭게 행한다면 무난하게 마무리 되는 모습이니라. 행운의 숫자 : 19, 89
戌	46년생 노력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라. 58년생 늦게까지 이어지겠다. 70년생 말과 속마음이 다른 이가 보이니 경계해야 한다. 82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니 진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행운의 숫자 : 75, 95
亥	47년생 만족할 만한 결과이다. 59년생 어중간하여서 이리저리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관공에 놓이게 되리라. 71년생 마음에 들지 않아 교체하게 되리라. 83년생 느긋보다는 사실적 정황에 비중을 뒤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0, 4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회원” ☎010-9790-8237

“새로운 활력 준 운명적 작품”

영화 '더 파이프' 은아 役 김선아

“이번이 열 번째 영화예요. 매년 이게 제일 중요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왔는데, 어느 날 내가 되게 지쳐 있더라고요.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쯤 만난 작품이 '더 파이프'예요.”

김선아(38) 만큼 TV와 스크린에서 공히 사랑받는 여배우를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 “배우라는 길을 온전히 가면서 내가 스스로 가뉘버린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에는 워낙 집중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날 방해하는 게 싫어서 차단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작품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작품의 울타리 안에서 하고 다 버리는 거죠. 집중력은 좋지만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됐고, 그렇게 작품 하나하나에 모든 걸 쏟다 보니 지쳐나 봐요.”

그런 그에게 “운명적인 만남”으로 다가온 작품 '더 파이프'는 새로운 활력을 줬다. 특히 이번에 연기한 인물 '은아'가 남긴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은아'는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하루아침에 잃고 두 다리까지 못 쓰게 돼 휠체어에 의지하지만, 자신을 그렇게 만든 연쇄살인범에게 처절한 복수를 꾸미는 인물이다. “그렇게 행복했던 여자가 하루아침에 너무 불편하게 살게 돼요. 연기하기는 하지만, 내가 그 삶을 살다 보니 감정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아주 작은 거라도 뭘 겪어야 감사를 느끼잖아요. 그런 걸 느끼게 해줘서 '은아'란 여자가 참 고마웠어요. 그동안 많은 여자의 삶을 연기했지만, 이 여자만큼 이렇게 가슴 속 깊이 남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배우로서, 한 인간으로서 지쳐 있던 저에게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해줬고 배우로서 다시 심장이 뛰게 해줬어요.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스릴러 장르에 상업영화지만, '이게 나라인?'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읽고 단번에 매료됐다고 했다.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벌써 내가 활쳐어 타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머릿속에 확 그려졌

어요. 이대로의 은아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죠. 가위로 직접 막 지른 듯한, 빨갛 비누로 감은 듯한 머리로 그렇게 나왔어요. 감정이 없어졌고 메마른 여자니까, 이전에 누구한테 사랑을 받았을 때와 그렇지 않게 됐을 때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생각이 감독님과 잘 맞았어요.”

극단의 상황에 부딪힌 인물면서도 감정이 메달라 표현을 거의 하지 않는 연기를 하기가 특히 어려웠다고 했다. 극중 은아가 복수의 조력자인 4인방을 자신이 살았던 옛 집으로 데려가 사랑하던 가족이 살인마에게 어떻게 당했는지 털어놓는 장면을 찍으며 그는 통곡을 했다. “전날 찍은 마지막 장면의 느낌이 계속 이어져서 더 그랬어요. '여기가 그곳입니다'라는 대사를 할 때부터 눈물이 터져서 주체가 안 됐죠. 분장실 들어가서 울었는데, 촬영하면서 이렇게 통곡하는 처음이에요. 울어야 하는 연기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누를 수가 없어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날 참 힘들었어요.”

반신불수 장애를 안은 인물을 처음 연기하면서 진짜 그렇게 보이려고 공을 많이 들였다고 했다. “연기 모니터는 하나도 안 했는데, 하반신이 1mm라도 움직이는지 확인하려고 봤어요. 모니터하면서 사람들에게 '저기 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라고 계속 물어봤죠. 움직일 수 없는 하반신과 내가 하나가 돼야 하는데, 혹시 따로 놀까 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는 이번 영화에서 '살인의 추억' 등으로 유명한 김형구 촬영감독, '괴물' 등에 참여한 정영민 조영감독 등 총무로의 정경환 스태프와 함께한 것도 큰 수확이라고 했다. “다들 훌륭한 분이 모여서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감정을 실어주시니까 계속 '와!' 하고 감탄사가 나왔어요. 이 작업이 저에게 첫 스릴러이고 이미지 변신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훌륭한 분들과 함께 하려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작품 선택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조규찬, 유학 후 3년 만에 컴백

내달 '메리 컴백 조규찬' 귀국 공연

조규찬(42)이 3년 만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국내 무대에 컴백한다고 8일 밝혔다. 조규찬은 활동 재개 신호탄으로 다음 달 25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메리 컴백 조규찬'이란 제목으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펼친다. 지난해 6월 유학 중 잠시 귀국해 공연을 연 이후 1년여 만이다. 그는 지난 2010년 아내인 가수 해이, 6세 아들과 미국으로 떠나 일리노이주립대학교-어바나 샴페인에서 재즈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해이도 같은 대학에서 공연 역사(Theatre History) 석사 과정을 마쳤다. 다음 달 초까지 미국에 머무르는 조규찬은 “3년 만의 유학을 마쳐 가족과 함께 귀국한다”며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남은 학업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귀국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시작으로 내년 10집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며 “그간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을 다양한 음악 스타일과 스펙트럼으로 선보이고 싶다”고 덧붙였다.



TV 하이라이트

이탈리아 풍부한 문화유산 속으로



세계테마기행(EBS·오후 8시50분)은 '예술의 보고장', '세계문화의 수도', '열린 박물관' 등 그 어떠한 수식어가 붙어도 과언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탈리아. 그 경이롭고 아름다운 유산 속에는 신화와 역사, 그리고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숨 쉬고 있다. 로마가 세계 제국으로 탄생하기까지 로마의 흥룡한 경쟁자였던 카르타고의 한니발과 문화 부흥기 르네상스의 든든한 후원자 메디치 가문, 그리고 이탈리아 통일을 이끌었던 가리발디 장군까지, 그들이 만들어낸 오늘날의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만든 그리고 이탈리아를 만든 그 유구한 역사와 위대한 예술을 중심으로 송동훈 문명탐험가와 함께 떠나본다.

1994년 성수대교에선 무슨 일이?



그때 그 사람(채널A·오후 8시30분)은 하루 차량 통행량 13만 여대. 더할 나위 없이 건조한 모습의 성수대교에서 1994년 10월 전 국민을 경악케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평소와 다름없이 직장으로, 학교로 향하던 사람들은 뜻밖의 운명과 마주했다. 성수대교 붕괴와 함께 한강으로 추락한 차량은 총 6대. 탑승자 11명 전원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승합차가 있는 한편, 탑승자 2명을 제외한 24명이 목숨을 잃게 된 16번 버스가 있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자조차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사고가 일어났던 10월 21일이 되면 유가족들이 추모식을 올린다. 하지만 매년 추모식에 참석하는 유가족은 약 5가족 뿐. 지을 수 없는 상처로 송동훈 문명탐험가와 함께 떠나본다.

홀더이동센터, 장애 극복 프로그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SBS·오후 5시 35분)은 천재 작곡가 베토벤, 사회사업가 웰렌펠러, 발명가 에디슨. 이 위인들의 공통점은 바로 장애를 극복한 것이다. 이들처럼 장애의 한계를 뛰어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광주시 서구, 홀로 삶을 세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뜻을 지닌 홀더지역아동센터. 이곳 아이들은 대부분 수화로 듣고 말해야 하는 청각장애 아이들이다. 수화를 전혀 몰랐던 비장애 아이들이 청각장애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수화를 배울 만큼 장애의 구분 없이 함께 더불어 지내는 아이들. 청각 장애로 인해 배움의 문이 더욱 좁은 아이들은 센터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다.